

# 전남 장애인 학대 3년새 2.6배 급증

### 2019년 46건서 2021년 121건으로 경증...잠재위험 사례도 늘어 여성 상당수 성적 피해...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오늘 토론회

최근 3년새 전남에서 장애인 학대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남영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이 5일 공개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안과 과제' 발제문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건 중 장애인 학대의심 사례는 2019년 46건이었지만 2020년 77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121건으로 3년 새 163% 증가했다.

의심 사례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9년 14건이었지만 2020년 32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35

건에 달했다.

잠재위험 사례도 8건(2019년)에서 30건(2021년)으로 증가했다.

잠재위험 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전남의 경우 지난 3년간 상담 및 지원 건수가 35.9회로 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전국 평균 12.6회)에 비해 높았다.

학대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50.17%, 남성은 49.8%였다.

송 관장은 "학대 유형 중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성적 학대 피해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 연령은 20대가 25%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7.3%, 40대 16.95, 50대 13.5%, 17세 이하 9.7%, 18~19세 7.6%, 60대 5.5%, 65세 이상 4.5%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6일 오후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이같은 발제문 등을 토대로 '전라남도 장애인 권익 옹호 체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연구소와 전남장애인 자립생활 센터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주관한다.

전남도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미경(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전남 동부지역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문을 발표한다. 전남의 지역적 특성상 면적이 넓고 도서지역이 많아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기림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활동가도 토론회를 통해 전남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이직률이 연간 40%에 달한다. 고강도 업무를 맡고 있으나 보상이 낮아 신규 종사자 채용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도 김승진 전남피해장인센터 '행복한 집' 원장 등이 토론회자로 나서 전남지역 장애인 권익 문제와 대안을 고민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 섬 14곳에 교사 추가 배치한다

### 도교육청, 2024학년도 '기초정원제' 추진...교육환경 개선

전남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대규모 교원정원 감축으로 전남의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은 공립 중등의 경우 전체 323개교 중 절반이 넘는 173개교(53.6%)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해당한다. 이들 소규모 학교는 교원 정원 배정 부족으로 정규교사 대신 겸임·순회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41개교(12.7%)는 도서·벽지 지정 학교로 겸임·순회 및 기간제교사 선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2024년부터 '전남형 기초정원제' 1단계로 도서 지역 14개 학교에 정규교사를 추가 배치,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에 정규교원이 배치되

면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전남에 대해 329명(초등 50명, 중등 279명)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을 단행했다.

도 교육청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전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중등교원 정원 TF'를 운영, 전남의 적정 교원수급 모델 마련을 위한 논의 끝에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첫걸음은 교원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다"며 "학교 현장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올해의 오월어머니상' 후보자 공모

### 오월어머니집 23일까지

오월어머니집이 오는 23일까지 '2023 제17회 오월어머니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오월어머니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시민을 찾아 노고와 공로를 위로하고 오월 정신의 참뜻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후보자 신청 및 추천은 국적에 관계 없이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인권을 위해 헌신하고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가능하다. 단, 5·18유공자 당사자나 친족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수상자는 개인 2명, 단체 1곳 등이며 개인 각 100만원, 단체 300만원의 시상금도 수여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1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오월어머니집에서 개최된다.

후보자 신청은 우편(광주시 남구 전변좌로 418번길 18) 또는 이메일(mmh0518@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가을 산책 나왔어요 소풍 나온 어린이들이 5일 코스모스가 활짝 핀 광주시 북구 각화저수지 인근 산책로를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승촌보 상시 개방·죽산보 해체” 취소 재검토를”

### 광주·전남 환경단체 성명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포함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금강과 영산강 보(洲)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을 재검토할 것과 보 철거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국가물관리 위원회가 명백한 정책 실패 사업으로 판명인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면서 “변경안은 우리나라 물관리 목표를 전지구적 흐름과 정반대인 수량 중심의 이수·치수 관점으로만 삼겠다는 선언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와 필요가 명확해야 한다”면서 “독일, 미국 등도 댐과 같은 인공 구조물을 없애는 것이 현재 추세지만 우리 정부는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상시 개방하고 죽산보는 해체하기로 했지만 지난달 감사원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놓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또 지난달 25일 변경된 국가물관리방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개최 됐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청회는 파행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시, 오염 물질 무단 배출 11곳 적발

광주시는 “여름철 오염 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해 11곳(개인 포함)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트랙터 운전 미숙으로 드림통을 틀어박아 기름을 공공수역인 농수로에 흘러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의 B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신고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배출 시설이나 오염 방지 시설을 적절하지 않게 운영한 업체도 있었다. 광주시는 6곳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고 8곳(일부 중복)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6~8월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나 하천 등 공공수역에 근접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2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근중 광주시 사회재난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반드시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작가를 꿈꾸는 문학 유토피아

# 목포 2023 문학박람회

MOKPO LITERARY EXPO

**목포문학관 일원 (주행사장) 9.15(금) - 9.17(일)**  
**북교동 일원 (차범석길) 9.14(목) - 9.17(일)**

주최·주관 | 목포시

후원 |

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